

연말 특수 노지감귤 가격 '고공행진'

지난 22일 기준 5kg 상자당 1만원대에 거래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시세 형성

제주 노지 감귤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시세로 12월 연말 특수 효과로 분석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2월 중순 제주산 노지감귤 5kg 상자당 도매시장 평균 가격은 1만원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고 시세를 형성하며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산 노지감귤은 지난 22일 기준 18만1411t이 출하돼 예상생산량 45만3000t 중 40%의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도매시장 평균가격은 5kg 상자당 7971원으로 지난해산 7650원 대비 4%, 2020년산 6469원 대비 23% 상승했다.

특히 12월 4주차(12월19일~12월22일) 평균 가격은 5kg 상자 당 1만 500원으로 같은 기간 지난해산 8100원 대비 30%, 2020년산 6770원 대비 55% 상승했다.

일주일로 가격추이를 보면 지난 13일 7800원/5kg→17일 7400원→19일 9600→20일 1만100원→21일 1만 100원→22일 1만400원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노지감귤 성출하기인 12월 가격이 1만 원을 넘은 것은 최근 5년간 유례없는 일로, 12월 중순부터 1만 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또한 다른 과일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과 대비해 단감은 32%, 배 20%, 포도 13%가 하락했다.

올해산 노지감귤의 경우 예년에 비해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폭설로 수확이 지연되면서 출하량이 감소했고 크리스마스와 연말 특수를 겨냥해 상인들이 선구매한 것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12월 3주차(12월12~17일) 도매시장 평균 반입량 1063t에서, 12월 19일은 폭설 등으로 출하량이 486t으로 54% 감소했고, 20일 739t, 21일 987t, 22일 932t이 출하됐다.

지난 주 폭설 예보에 따라 산지에서는 수확을 서두르고 있으며 화물선 결항 등으로 도매시장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중도매인들이 활발하게 구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는 소비시장 유통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좋은 가격이 유지되도록 판촉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장애인 자립 지원 임대주택

제주시·LH 제주본부 18호 공급

제주시 도련동에 장애인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 지어진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3일 LH 제주본부와 장애인 자립 지원 등을 위한 주택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독립 공간 제공,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거 공간, 아동 돌봄지원 기관 운영 등을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착공 계획인 임대주택 규모는 총 38호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1.5룸 형태의 장애인 주택 18호, 한부모가족을 위한 2룸형 주택 4호,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6호가 들어선다. 근린생활시설에는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북카페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성탄 전야 누에마루거리 풍경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제주시 연동 누에마루거리를 찾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서귀포시 대정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서귀포시는 대정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차단과 탄소저감 확충을 위한 '대정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부터 대정읍 일과리 대정농공단지 주변에 가시나무류를 비롯해 나무 8000여본을 심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정자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갖춘 생활형 숲으로 조성했다. 특히 시는 차단숲 조성을 통해 단지 내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해 대정농공단지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백금탁기자

녹지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정자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갖춘 생활형 숲으로 조성했다. 특히 시는 차단숲 조성을 통해 단지 내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해 대정농공단지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백금탁기자

제주개발공사 '그레이트 리셋' (중) 친환경경영

'그린 홀 프로세스'로 친환경 이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친환경경영 리더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2월 '그린 홀 프로세스(Green Whole Process)' 경영 비전을 선포했다. 생산부터 유통·수거·재활용(업사이클)까지 제품 생애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친환경 사업 모델로, 플라스틱 절감과 함께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이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제주개발공사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포장재 개발, 생산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추진한다.

▶제주삼다수, 친환경 포장재 라인업 구축: 그린 홀 프로세스의 첫 번째 일환으로 작년 6월 제주삼다수 무라벨 제품 '제주삼다수 그린'이 출시됐다. 제주삼다수 그린은 음용 후 그대로 순환시킬 수 있는 3無(무라벨·무색캡·무색병) 시스템이 특징이다. 330mL, 500mL, 2L 제품 모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재활용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제주삼다수 그린은 출시 6개월 만에 전체 판매량의 30% 비중을 넘어섰고, 가정 배송 서비스를 확대한 수업에서는 매출 비중이 85%까지 늘어나는 등 소비자에게도 성원을 받고 있다. 제주삼다수는 무라벨 제품 판매를 통해 6개월 만에 64t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다.

대체 포장재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작년 7월에는 기존 페트병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8% 적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제주삼다수 바이오(가칭)'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 생수업계 최초로 화학적 리사이클 페트(CR-PET)를 적용한 제품 개발도 성공했다.

이로써 제주삼다수는 무라벨 제품부터 물리적 리사이클 페트인 MR-PET, 바이오페트, CR-PET 등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 라인업을 가지게 됐다.

▶출시 이후 지속적인 플라스틱



국내 유일 친환경 사업 모델인 '그린 홀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이 이뤄지는 제주삼다수.

지난해 경영비전으로 선포... 단계별 로드맵 이행 중 플라스틱·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감축, '탈 플라스틱' 가속화: 제주개발공사는 지속적으로 제주삼다수 용기의 플라스틱 중량을 감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500mL 제품의 플라스틱을 2g 감량하고 전국 판매에 나섰다. 앞선 2018년 동일 제품 중량을 1.5g 감축한 데 이어 4년 만에 추가 감량에 성공한 것으로, 플라스틱 중량을 16g까지 줄였다. 제주삼다수는 이번 플라스틱 감량으로 올 한 해 약 280t의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제주삼다수 2L 용기 1개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양은 출시 초기 대비 8.5g 줄었으며, 작년에는 제주삼다수 그린 330mL 제품의 플라스틱을 2g 감축했다.

▶폐기된 자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자원순환'에도 앞장: 제주개발공사는 용도를 다한 페트병이 자연을 훼손시키는 쓰레기가 아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형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공사는 2020년 3월 제주도와 협업해 제주에서 배출되는 투명 페트병을 모아 친환경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시켜 제주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다시 태어나기 위

한 되돌림'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도내 재활용 도움센터, 클린하우스 등 125곳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3년(2020년~2022년 6월)간 1185톤의 자원을 수거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마트를 중심으로 16대의 페트병 자동수거 보상기를 운영 중이다. 바다에서 조업 중 선원들이 마신 생수의 페트병 등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모아 수협에 제공하면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보상해주는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프로젝트'도 3년째 진행 중이다.

제주개발공사는 더 나아가 자원순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객들의 자원순환 생활화를 돕기 위해 가정배송서비스를 활용해 삼다수병을 회수하는 프로그램도 론칭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삼다수를 담은 용기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만큼,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단계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해 환경 영향을 줄이고자 한다"며 "2030년까지 목표한 것들을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르기자 bigroad@ihalla.com

*이 취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을·더덕
씩씩음, 균형형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토 지 구합니다

· 제주시 ·

구좌읍 조천읍

조건

- ① 전원주택용 부지
-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 ③ 계획관리지역

베네 건축 베네 하우스

문의: ☎ 064-723-1105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시공 / 징크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